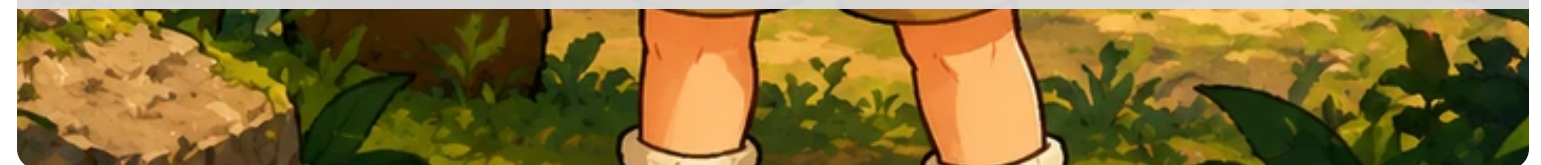




신비의 섬과 잃어버린 황금 나침반

기주현





레오는 할아버지의 다락방 구석에서 먼지 쌓인 오래된 지도를 발견하고 전설 속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작은 배를 타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레오의 눈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반짝입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신비한 섬은形形色색의 빛나는 꽃들과 거대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마법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레오는 지도를 손에 쥐고 울창한 숲속으로 발을 내디디며 섬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거대한 폭포 뒤에 숨겨진 동굴 입구에서 레오는 고대 문자가 새겨진 신비로운 퍼즐 장치를 발견합니다. 한참 동안 고민하며 퍼즐을 맞추자 묵직한 돌문이 천천히 열리고 동굴 안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흘러나옵니다.



동굴 깊은 곳에서 레오가 찾아낸 보물은 단순한 금은보화가 아닌, 진정한 꿈을 찾아주는 전설의 황금 나침반이었습니다. 보물을 소중히 품에 안은 레오는 이번 모험을 통해 얻은 용기와 자신감을 느끼며 환하게 웃음 짓습니다.